

신령한 예배
찬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아름 사랑

주간충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진나라
마태복음 4:17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발행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7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환 편집인: 노광헌 편집: 양재웅

전도와 선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눅 19:10)



현재 매일 둘째 주 수요일과 토요일을 중심으로 총력 교회주변 전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여전도회 중심으로 교회주변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남전도회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도들이 나뉘 준 전도지를 읽은 후, 한 번 생각해 보겠다는 분들 중에 실제 교회에 등록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교회 주변의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문전박대 당하기는 다반사이고 아예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충현의 많은 전도자들은 변함없이 교회 주변에 다니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전도에 관한 안타까운 소식이 우리들의 마음에 아프게 합니다. 선교를 가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한 방면으로 전도를 하는 분들 때문입니다. 현재 단기선교를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한 사람을 전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낯선 해외 선교지로 떠나기 전에 한 영혼의 소중함과 복음전파의 중요성을 심령에 각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교묘한 편법을 사용하여 1인 1명 전도의 중요한 의미를 퇴색시키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물론 요즈음 전도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복음을 들으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회에 나오는 것은 매우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기도하며 전도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를 막을 수 있는 장애물은 없습니다. (사 19:3, 4)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에 전도가 어렵다는 핑계를 댑니다. (골 4:3) 전도는 쉽거나 어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상관없이 우리는 반드시 전도를 해야 합니다. 특히 전도한 영혼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롬 8:38, 39) 한 영혼을 교회로 인도하고 그 영혼이 진심으로 복음을 깨닫고 십자가의 길을 걷기까지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자신의 능력과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롬 1:20)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만 의지하십시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딤후 1:3)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들으라! (금요찬양집화)

권 위

삼손의 신앙이 무너진 원인은 무엇인가? 물론 그것은 어느 한가지 때문이 아니라 작은 것들이 쌓이고 쌓였기 때문임을 이미 살펴보았다. 그러나 그에게 있었던 많은 문제 중 하나는 첫눈에 유혹에 빠졌다는 것이다. 그의 행동은 하나님의 권위를 배척한 것이다.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을 그녀의 부모에게 요구할 때에 그의 태도가 이것을 증명해 준다. (사 14:1-3) 삼손이 나실인의 서원을 어길 때 마다 그는 하나님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렸던 것이다.

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권위에 있다. (마 6:33)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안에서 나의 권위는 복종되어야만 한다. (사 21:25) 역사적으로 볼 때 삼손으로부터 엘리 대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까지의 시대는 참으로 무법한 시대였다. (삼상 2:17, 22, 41) 이 상황을 자세하게 분석하면 그 문제의 뿌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배척함에 있었다. 이 권위는 에덴동산에서도 현저하게 나타났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명령을 어겼을 때 모든 축복을 잃고 말았다. (사 14:12, 13)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주시는 것을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반항하는 것보다 가볍게 여기신다. 즉 다윗은 밧세바를 데려다가 간음하였고 또 그의 남편을 죽이는 무서운 죄를 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서 나라를 빼앗지 아니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하셨고 회복시키셨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의 죄를 직면하였을 때 그는 자신의 체면을 세우려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공식적으로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사 51:1, 4) 그러면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 보자. 사울은 음행하지도 않았고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도 짓지 않았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회개하지 않았고 체면을 세우며 하나님을 반역하고 명령을 거스렸다. (삼상 15:20, 21, 30) 그 결과로 그는 왕국을 빼앗겼다.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이 권위를 인식하게 되는데 우리의 마음 속에도 항상 권위가 있다. 그리고 사회, 가정, 교회 안에도 권위가 있다. 신자들의 신앙이 잘 자라나고도 어떠한 사건에 봉착하게 될 때에 교회의 권위에 화를 내고 반감을 갖게 된다. 그들이 배척하는 것은 목사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요, 이 교회에 목사를 보내신 하나님을 향하여 반기를 들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이다. 진심으로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는 권위다. (롬 13:1, 2) 거역하는 것은 사울의 죄와 같다. (삼상 15:23) 왜 거역하는 것이 사울의 죄와 같은가? 그것은 하나님을 반항하는 것이고 마술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날려는 노력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권위에 순복하고 가르치신다. 그런데 그 권위를 갖고 행하는 사람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였는가? 분명한 사실은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에게 권위가 주어졌음이 틀림없다. 다윗이 사울왕을 대한 것이 바로 이러한 태도였다. 다윗은 사울의 왕권을 존중했으며 하나님께서는 다윗 안에 있는 그 마음을 존중하셨다.

왕 되신 예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이 옳은 대로 사는 것을 ‘인본주의’라고 한다. ‘인본주의’는 인간이 좋아하고 가치를 두는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데에 모든 생각과 방법을 집중하는 사상이다. 이 사상은 결국 하나님의 반역자가 되게 한다.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도와 같은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신 백부장과 같이 되어야 한다. (눅 7:8, 9) 이제 내 자라나 다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 그때에 우리는 내 자신을 부인하게 된다. 삼손은 태중에서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되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이다. 그런가하면 삼손은 하나님과 맺은 서원들을 깨뜨린 자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삼손을 통해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셨다. 우리는 지금 현실의 교회를 삼손에 비추어 살펴보면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재검토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정지시킬 수도 없고 우리 편화시킬 수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서 왕에게 하나님만이 인간의 모든 행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다. (단 4:34)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아주 깊이 빠져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과도하게 정치, 문화, 사회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해서 싸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삼손과 함께 일하셨고 또 지금 우리와도 함께 일하신다. 비록 하나님은 많은 일들을 하겠지만 삼손은 그 자신이 실수한 그것 때문에 우리들의 노예가 되어버렸다. (사 16:21) 고지 마지막으로 승리를 거둘 때에는 그의 생명을 내어놓았다. 삼손이 그의 눈을 빼앗기고 블레셋의 포로가 되어 옥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의 심중에 회개를 시작할 수 없다. (사 16:28) 만일 우리도 하나님의 권위를 배척하면 우리는 삼손과 같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당하고 눈을 빼앗기고 원수를 위하여 목숨을 갈아주는 종이 될 뿐이다.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활짝 문이 열려있는 옥중에서 철장을 통하여 밖을 내다보는 비참한 존재들이 된다. 하지만 우리에게에는 또 다른 선택도 주어졌다. 하나님을 따라 가기로 선택하고 그의 통치하중에 완전히 순복하고 우리 자신들을 부인하고 내어드리라는 길이다. 이때에 우리에게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흐르는 물을 거스려 헤엄쳐 나갈 필요가 없이 천지만물과 함께 모든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현실적으로 이루어 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우리 모두 함께 따라 가기를 원한다. 아멘.

EVE'S RELEASE

(25) Adam had relations with his wife again; and she gave birth to a son, and named him Seth, for, she said, "God has appointed me another offspring in place of Abel; for Cain killed him." (26) To Seth, to him also a son was born; and he called his name Enosh. Then men began to call upon the name of the LORD. (Genesis 4:25&26)

Today is Family Sunday, a special time to reflect on an important part of God's plan. God created the family. He ordained the home, not the herd. He blessed humans, not animals. Adam and Eve were the first family He made. Thus, Eve is literally the mother of us all. (Gen. 3:20) She committed the first sin, which allowed the curse of death to touch all humanity. God removed her and Adam from the Garden of Eden for their benefit. Eve's firstborn son killed her second son. The stress and guilt of Eve's situation was tremendous, but God released her from this pressure through the birth of her third son, Seth. Let's look at her life outside the Garden and see the grace of God at work.

Eve's first hope came with the birth of her first child. The Bible tells us, "Now the man had relations with his wife Eve, and she conceived and gave birth to Cain, and she said, 'I have gotten a manchild with the help of the Lord.'" (Gen. 4:1) Her son, her family, brought her hope. With the help of the Lord, all families have hope. God created marriage, "For this reason a man shall leave his father and his mother, and be joined to his wife; and they shall become one flesh." (Gen. 2:24) and He blessed that union, "God blessed them; and God said to them, 'Be fruitful and multiply, and fill the earth, and subdue it; and rule over the fish of the sea and over the birds of the sky and over every living thing that moves on the earth.'" (Gen. 1:28) Just as God blessed the church with its spiritual fruits through Christ, so He blessed Eve through her family. He promised that her seed would bruise Satan on the head. (Gen. 3:15) With the birth of her first son, God's family blessings began.

Eve's hope soon turned to a mother's heartache. The joys of giving birth, watching her little boy take his first steps, and say his first words were a treasured blessing. Her blessing of motherhood soon included another son, whom she named Abel. Do you think their home was filled with happy singing and family love? No. Cain became a farmer and Abel a shepherd, and Cain killed Abel, "And it came about when they were in the field, that Cain rose up against Abel his brother and killed him." (Gen. 4:8) The Bible does not tell us how Cain killed Abel, but we do know that whatever weapon he used had the same effect on his mother's heart. Our sin always bruises others. It

always affects those we love. We cannot imagine the heartache and misery Eve experienced. The pain and suffering of losing a child is hard enough, but to have the cause of death be at the purposeful hands of your firstborn is tragic. Eve lost all hope. Her family was destroyed. When Jacob heard that his son was killed by an animal, he tore his clothes, "and put sackcloth on his loins and mourned for his son many days. Then all his sons and all his daughters arose to comfort him, but he refused to be comforted. And he said, 'Surely I will go down to Sheol in mourning for my son.' So his father wept for him." (Gen. 37:34&35) Parents suffer great sadness over the loss of a child. Eve had this sad heart and more.

Eve's heartache was turned to the highest of happiness, "Adam had relations with his wife again; and she gave birth to a son, and named him Seth, for, she said, 'God has appointed me another offspring in place of Abel, for Cain killed him.'" (Gen. 4:25) Now, this is a good family. Without the Lord, jealousy kills. Eve cannot forget her son Abel; she cannot forget Cain killed him. On her own, she cannot release herself from this reality; no one can give her relief but God. Only God can bring relief to great heartache. The grace of God is more than enough for human hurt. How can one forget Abel's death and Cain's violence? Eve recovered through God's recovering love. God's grace is always sufficient. Seth was born as a substitute for Abel, just as Christ became our substitute on the cross. Seth brought Eve great joy, and his son brought revival, "To Seth, to him also a son was born; and he called his name Enosh. Then men began to call upon the name of the Lord." (Gen. 4:26)

My dear friend, God meets us where we are. I know today, here in this worship service that there are many broken families. I know there are people here who are experiencing deep hurt and severe depression and feel like there is no one that can help or relieve the stress. Is your stress more than Eve endured? She committed sin and was kicked out of the Garden. Her first son, the one she had so much hope in, turned bad. Her second son died. She cried and cried to the Lord God and He met her in her troubled time. He gave her another son. He relieved her. He encouraged her. God meets the wayward and calls them to Himself. Amen. 🙏

다들 주일 설교

하와에게 주신 자유

(25)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26)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4:25,26)



김성관 목사

오늘은 가정 주일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정에 대해 상고해 보는 특별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동물이 이루는 큰 무리와 구별되는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동물이 아니라 사람에게 은총을 내리셨습니다. 이 은총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문자 그대로 모든 산 자의 어머니입니다. (창 3:20) 그러나 하와는 아담과 함께 최초로 죄를 범했으며 그로 인하여 모든 인류에게 사망의 저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동산에서 내어보내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낳은 첫아들은 둘째 아들을 죽였습니다. 이로 인해 하와가 받은 중압감과 죄책감은 참으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셋째 아들, 셋을 통해 하와를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주셨습니다. 에덴동산에서 나온 뒤의 하와의 삶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총이 어떻게 그에게 임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인의 탄생이 안겨 준 소망

하와의 첫아이는 그녀에게 첫소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창 4:1) 그녀의 아들과 가정은 하와에게 소망을 가져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가족들이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결혼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찌로다" (창 2:24) 그리고 하나님은 이 결혼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 1:28)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에 영적인 열매의 축복을 내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 하와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녀의 씨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창 3:15) 하와의 첫아들의 탄생과 함께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벨의 죽음으로 인해 입한 고통

하와의 소망은 오래 지나지 않아 고통으로 바뀌었습니다. 출산의 기쁨뿐만 아니라 자신이 낳은 어린 아들이 첫발을 내딛고 처음으로 말을 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그 무엇보다 비길 수 없는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엄마가 되는 은총 속에 곧이어 또 다른 아들이 태어났고 그녀는 그에게 아벨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는 늘 행복한 노래와 따스한 사랑이 넘쳐났을까요? 아닙니다. 시간이 흘러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부가 되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창 4:8) 성경에는 가인이 어떻게 아벨을 죽였는지 분명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무기를 사용했건 간에 그의 어머니의 가슴에 난 상처의 무게는 그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항상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것은 항상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다. 하와가 느꼈던 아픔과 고통을 그 누가 짐작할 수 있었습니까? 자식을 잃는 슬픔과 고통은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가혹한 것입니다. 게다가 아벨의 죽음은 가인에 의해 저질러진 고의적인 것이었기에 더 큰 비극이었을 것입니다. 하와는 모든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녀의 가정은 파괴되었습니다. 한편 야곱 역시 사랑하는 아들이 들짐승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나 큰 슬픔으로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야곱이 "굶은 베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창 37:34,35) 부모에게 있어 자식의 죽음만큼 큰 슬픔을 안겨주는 일은 없습니다. 하와와 야곱은 그것이 얼마나 쓰라린 아픔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셋의 출생을 통해 주신 자유

하와의 고통은 최고의 행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창 4:25) 이제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을 때 집투가 살인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와는 아들 아벨을 잇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아벨을 죽인 가인도 잇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와는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이 고통스런 현실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그녀에게 안식을 가져다 줄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커다란 고통 가운데서 안식을 주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인간의 고통을 충분히 덮고도 남습니다. 어떻게 하와가 아벨의 죽음과 가인의 범죄를 잇을 수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와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언제든지 부족한 법이 없습니다. 셋은 아벨을 대신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셋은 하와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셋의 아들은 그녀의 가정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 4:26)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분들 가운데에도 가정의 불화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깊은 상처와 절망에 잠겨 아무도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신을 건져낼 수 없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시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고통이 하와의 고통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와는 죄를 지었고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모든 기대를 걸었던 그녀의 첫아들은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와는 건질 수 없는 심정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목놓아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고통의 현장을 그녀를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와에게 또 다른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와를 고통으로부터 건져내어 자유를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전혀 소망이 없는 자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을 주님의 은총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

수요1부 예배 메시지 (2007. 5. 9.)

끝이 없으신 하나님 (창세기 1:1~3)

하나님은 끝이 없으신 분이시다. 우리의 이성과 감정으로 그분을 이해할 수 없다. 세상의 학문과 경험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런데 어리석고 교만한 우리들은 세상의 가치를 앞세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애쓴다. 이것은 헛수고일 뿐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부활을 설명할 수 있는 세상의 가치는 없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겪은 일을 떠올려 보자. 매순간 일어난 놀라운 기적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가? 그리고성이 무너진 이유를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검증할 수 있는가? 이것은 불가능하다. 끝이 없으신 하나님을 감히 자신의 이성과 감정으로 이해하고 분석하려고 하지 말자.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열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영원을 바라보자. "태초에 하나님!" (창 1:1)

창조 전에 하나님은 존재하셨다

끝이 없으신 하나님은 창조 전에도 존재하셨다. 이것은 불변하는 진리이다. 그런데 이 진리는 우리의 이성과 감정으로 알 수 없다. 단지 믿음으로만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창조 전에 하나님이 존재하셨다는 진리를 진실로 믿는다면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은 없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주 오늘 여 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들세." (찬 313장)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말씀과 멀어진다. 하나님 대신에 세상의 가치에 매달리게 된다. 돈, 명예, 가족과도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하신 분은 당연히 하나님이지이다. 창조 전에 존재하셨던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종인과 종으로 택하신 유일무이한 분이시다. (사 43:10) 이처럼 영원한 신 하나님만이 모든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 (신 33:27)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 (시 90:2)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토록 우리를 통치하는 왕이시다. (제 22:5)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던 것이다. (요 3:16) 특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세상의 학문과 경험으로 영원히 풀 수 없었던 사방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요 5:24) 구원의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신 하나님은 창조 전에 존재하셨다.

하나님은 창조물과 구별되신다

끝이 없으신 하나님은 창조물과 구별되신다. 이 구별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것을 구별하지 못해서 우리는 아주 쉽게 세상을 좇아가기 때문이다. 창조물과 하나님을 구별하지 못할 때 우리의 인생은 너무 비참해진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모든 만물은 창조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 (시 19:1) 무엇보다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창조물들을 세밀히 보호하시며 다스리신다. (마 6:30 : 막 4:39) 창조주의 말씀을 막을 그 어떤 장애물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시 19:3,4) 그러므로 자신의 부족을 핑계 삼아 복음전도를 회피하지 말자. 표적만을 요구하던 유대인들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표적(요 11:44)을 보았음에도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다. 중요한 것은 표적이 아닌 창조주를 향한 믿음이다. 우리의 이성과 지식으로 가늠할 수 없는 창조주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믿자. (롬 1:20) 하나님은 창조물과 구별되신다.

하나님의 계획은 피조물을 위함이다

끝이 없으신 하나님은 피조물을 위한 계획이 있으셨다. 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가! 태초에는 혼돈밖에 없었다. (창 1:2) 그 혼돈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기 시작했다. (창 1:3) 이 모든 것은 피조물을 위함이었다. 마침내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었던 우리에게 거듭나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다. (요 3:3,5) 이 거듭나는 은총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고후 5:17) 예수님은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셨다. (요 8:12) 오직 말씀만이 나의 앞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시다. (시 119:105)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여호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 27:1) 피조물을 위한 하나님 계획으로 우리의 삶은 은총으로 가득하다.

영생은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끝이 없으신 하나님은 영생을 주신다. 원래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음의 권세 아래

있었다. (시 90:10) 그러나 끝이 없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을 준비할 수 있게 하셨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열게 하소서" (시 90:12)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요일 5:13) 이처럼 세상의 그 무엇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롬 8:38,39) 이 은총으로 가득한 사랑의 음성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 내려지고 있다. 영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창조 전에 존재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반복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믿음으로 이 음성에 귀 기울이자. 이 부르심에 순종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걷자. (마 16:24) 오직 믿음으로 순종할 때 창조물과 구별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위한 특별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실 것이다. 끝이 없으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다.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지바한 주께로 지금 곧 나아오라." (찬 321장)

오직 예수님께 순종하는 1교구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마 16:18)라는 말씀과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교구위원회의 지도에 따라 1교구 성도들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며 오직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고 있다. 이 순종은 모든 교구 식구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이게 하였고 새벽기도회를 비롯된 모든 공예배 참여를 자원하는 교구로 바꾸어 가고 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 2:20)는 말씀처럼 십자가는 1교구의 기초이다. (벧전 1:3) 주님의 교회는 교구가 먼저 복음으로 세워질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기에 우리 교구는 더욱 예수님만을 바랄 것이다.

교구의 확대 개편으로 제1교구는 249세대 600여명이 조금 넘는 인원으로 구성되었다. 이것은 개편되기 전의 50% 수준이다. 5개 지역과 교역자 가족이 포함된 1개 지역으로 나뉘어 모두 18구역, 7개 전도회, 5개 남성구역으로 조직되어 이제 더욱 세밀하게 각 가정을 돌아보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제 더욱더 지역장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길 기도하며 모든 일꾼들이 작은 목회자 같은 심정으로 교구 성도들을 돌볼 것이다. 특별히 교역자 가족이 148명이나 1교구에 소속되어 있기에 특별한 지역의 용사들을 얻은 것 같다. "예수 그리스도요.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빌 1:11)

우리 교구의 중심에는 말씀이 있다.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우리 교구는 부흥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교구식구들이 모든 예배와 집회에 참석하도록 권면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매주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말씀을 담아 일꾼들에게 보내고 있다. 또한 교회에 가장 근접한 교구이기에 새벽기도회에도 매일 나와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다. 또한 마리아 전도회에서도 매주 목요일 10:00~12:00까지 자체적으로 교회주변 전도를 하고 있다. 사실 어떤 지역의 열매들이 많은 마리아 전도회원들은 시간을 내기를 고사하고 전도 자체가 쉽지 않지만 이들 모두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있다.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히 5:9) 우리 교구는 앞으로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예수님께만 순종할 것이다. 벅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와 기적을 경험하였던 사람들처럼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총만을 구할 것이다. 자칫 우리의 열심이 나올 수 있기에 매순간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더욱 기도할 것이다.



김선국(장로, 제1교구장)

“저희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이곳에 복음을 전하러 왔지만 정말 막막하였습니다. 사랑을 둘러봐도 높은 산과 정글숲 뿐이었습니다. 저희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희들의 낙약함과 부족함을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기도했을 때 주님은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내가 사랑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찌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시 23:4) 이 말씀이 저의 마음속에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깊은 정글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길은 너무 험했습니다. 아찔아찔한 위험의 순간들이 닥쳐옵니다. 팀원들 중에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위험합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만 믿고 앞으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저의 머릿속에는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차가 더 이상 가질 못하는 곳까지 갔을 때, 우리 모두 합성이 나왔습니다. 그곳에 주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곳 큰 마을이 있었습니다. 학교도 있었습니다. 토요일이라 학생들은 없었지만 마을에서 많은 어린이들을 만났습니다. 마음껏 찬양을 하였습니다. 마음껏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말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분이 아닙니다. 정글 속을 가는 우리들에게 가는 곳마다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나게 하였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매순간 깨닫게 하셨습니다. 성령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 예수님은 저희들을 도와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무시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김홍기(안수집사, 24교구)



주님만 바라보며 자기를 부인하리라

19교구 1팀

- 선교지의 열악한 환경, 가난과 우산에 찌들어 있는 현지 영혼들이 눈에 가득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아이부터 노인까지 복음을 받아들여 “아멘”으로 화답하였다. 영접기도까지 끝마쳤을 때 영혼에 대한 목이 메이는 안타까움이 있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의 마음이었다. (이병희 집사)
- 처음에 선교 가는 것을 망설였다. 그래서 기도했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 예수님은 해같이 맑고 순전한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나에게 주셨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진실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었고 많은 어려웠지만 그들에게 십자가를 전했다. (조숙애 집사)
- 습도가 높아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날씨였지만 사역은 멈추지 않았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연약하고 불쌍한 영혼들을 깨우고 기도를 드렸다. 십자가의 씨앗은 우리가 뿌렸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다시 한 번 깨달았다. (남정숙 집사)
- 우리들의 입술에 너무나 익숙해져버린 ‘자기부인’이란 말을 머리로서는 인정하면서도 가슴으로 품지 못했던 연약한 자신임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 지금도 찬양과 영접기도를 따라하건 그 순수한 영혼들과 우리 결을 스쳐간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해 달라고 기도한다. (유승환 집사)
- 선교 중 한 아주머니는 어느 집으로 우리를 들어오라고 하며 인도하였다. 그분이 그 집주인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같다.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며 우리도 힘을 얻고 그분도 힘을 얻은 것 같다. 기쁨으로 선교사역을 감당케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영실 집사)
- 중요한 시험을 앞둔 남매를 두고 선교지로 떠나는 발걸음은 가볍지가 않았다. 그러나 ‘예수님만 바라보며 자기를 부인하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역을 감당하였다.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팀원의 모습에 나도 도전받아 열심히 예수님을 전했다. 기뻐다.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하였다. (이인숙 집사)
- 많은 영혼들을 만나기 위해 애쓰는 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감사의 기도가 저절로 나왔다. 집집마다 우상을 모셔놓고 돈과 음식을 놓고 절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더욱 뜨겁게 복음을 전했다. (최진성 안수집사)

예수님 자랑!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많이 많이 사랑하시고, 또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좋고, 또 많이 미안해요. 예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는 것이 참 좋고, 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셨다는 것이 정말 정말 미안해요.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유년부에서 정말 예수님 생각 많이 하고 말씀과 찬양을 배우면서 정성껏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내가 아를 때 ‘예수님 빨리 낳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예수님은 언제나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 우리 할머니가 편찮으실 때도 할머니를 위해서 예수님께 ‘빨리 낳게 해 달라’고 기도드렸는데, 할머니께서 ‘너의 기도 때문에 빨리 나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기도할 때마다 모두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요. 아마도 우리 예수님은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시나 봐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도 얼마 아빠랑 기도하고, 또 다른 노예보다 찬송을 많이 불러요. 그러면 제 마음이 정말 기뻐요. 우리 예수님도 기쁘시겠죠? 이제 정말로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할 거예요. 선생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면 꼭 전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걸 교회를 세우는 거래요. 그래서 저는 꼭 전도도 하고, 성경필사도 열심히 해서 예수님을 자랑할 거예요.

신지혜(유년부)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2개 팀)

기 간	팀	팀 장
4월 30일(월)~ 5월 8일(화)	5·2·4·10교구 연합	김옥권
5월 1일(화)~ 5월 9일(수)	24교구	정재영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3개 팀)

기 간	팀	팀 장
5월 7일(월)~ 5월 15일(화)	16·24교구 연합	김철환
5월 11일(금)~ 5월 19일(토)	9·10·162구·티고연합	전성욱

기 간	평신도 단기선교사
4월 4일(수)~ 6월 23일(토)	정영미·전혜영 (에버다부)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3개 팀)

기 간	팀	팀 장
5월 16일(수)~ 5월 24일(목)	6·7교구 연합	안상직
5월 16일(수)~ 5월 25일(금)	3·1·2·4교구 연합	이부성
5월 17일(목)~ 5월 25일(금)	14·15교구 연합	류기명



나는 교회 계단을 올면서 올라왔다

믿음이 좋았던 어머니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키우기에 교회에 가는 것은 생활이었고 자연스러운 성령의 한 과정이었다.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는 간암 판정을 받으셨고 이후 5년을 투병하시다 돌아가셨다. 아버지가 남기신 것은 병원비로 쓰여진 빚터미뿐이었다. 빚을 갚기 위해 우리 집은 경제로 넘어갔고 남은 우리 가족은 해체되었다. 주님이 주시는 고난이라 이해하기엔 나는 너무 어

렸고 사람의 주님이시라면서 내게 주어진 현실은 너무 가혹했기에 나는 의식적으로 가슴 귀퉁이에 자리한 주님을 매일 조금씩 내뿜면서 원망하면서 철저히 세상과 벗할 수밖에 없었다. 내 삶을 계획하고 실천하고 때로 좌절하면서 나는 나를 채찍질했고 내 삶의 주권자인 나를 완성해 나가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결립돌처럼 양심의 가책처럼 되살아나는 주님을 나는 외면하고 싶었고 그저 사는 데만 열중하며 20여년을 보냈다. 그덕에 경제적으로 안정계대로 돌아갈 수 있었고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내 속 어디에도 계시지 않았고 주님과 철저히 단절된 상태였다.

3년 전, 내 인생에 엄청난 슬픔이 몰려왔을 때 나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교회에 다닐 테니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현실의 어려움을 도와달라"고 애달랐다. 그리고 이 교회 저 교회를 돌아다녔다. 하지만 어디에도 은혜는 없었고 예배시간에는 잠만 자다 돌아왔다. 나는 정말 간절히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다. "주님의 교회로 나를 인도할 분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을 때 사람의 주님은 이 교만한 자의 기도에도 즉각 응답하셨다. 출렁교회 집사라는 친절하게 생긴 아주머니를 내게 보내주셨던 것이다.

처음 출렁 교회를 나오던 날, 나는 교회 계단을 올면서 올라왔다. "이곳이 내 집이로구나!" 20여년을 주님을 부인하며 살아온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셨던 주님은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셨고 내가 묻고 돌아온 세상의 때와 좌악에서 철저히 회개시켰다. 쏟아지는 눈물과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으로 내가 죄인임을 자복하게 하였고 내가 예수님을 외면하며 실족하여 넘어지는 순간마다 나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다.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은 수차들을 드러나게 하였고 나를 변화시키고 치유하시며 나의 삶의 목적을 바꿔놓으셨다. 드디어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고 구원의 확신이 내게 임했다.

"오! 주여 왜 내게임이구나!" 특별히 감사한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건널 수 없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다. 나같은 죄인에게 말이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믿음을 가지길 원한다. 내게 임하는 말씀의 감동대로 거듭나길 기도한다. 주님의 은혜의 도구로 사용되길 기도한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앞으로 어떤 환경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길 소망한다.

최연희(성도, 4교구)

자기 부인의 삶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 우상을 섬기는 부모 슬하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자랄 때는 흔히 가정집을 교회로 사용하는 때였습니다. 어느 날, 어떤 집 앞을 지나려는데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잔치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게 기뻐서 즐겁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서서 그 노래 소리를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곳은 교회였습니다. 그 때부터 교회에 가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믿음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고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도 듣고 찬양과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이 진리인지,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지 잘 몰랐기 때문에 제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께서 축복기도를 하실 때에는 세상적인 것을 위해 축복 해 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이 흘러 신앙이 무엇인지 조금씩 깨닫게 되었고, 매주일 선포되는 복음을 통해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자기를 부인하라"는 설교를 들으며 세상적인 욕심과 죄로 가득 차 있던 제 자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설교를 듣고 깨닫는다고 해도 행함없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세상적인 욕심을 내려놓아야 함을 알면서도 포기하지 못하고 마음 깊이 욕심을 묻어두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에서 "천국을 도적질하는 자가 아님니까?"라고 하시는 말씀이 제 마음에 강하게 부딪혀 왔습니다. '어떻게 내가 젊어지고 있던 이성과 육신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위해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천국을 도둑질하는 것밖에 되지 않겠구나' 이 후로는 예수님을 제외한 세상의 짐을 내려 놓으려고 매순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 주님과 멀어졌던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로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회개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가슴 속에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이 자리잡고 있다면 이제는 이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이 제 마음 속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셔서 못난 칠고통에 보배를 담고 싶습니다. 천국을 도적질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지아연(집사, 16교구)

임마누엘

엘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자신들과 동행하시던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항상 저와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너무나 몰랐습니다. 특히 갑작스럽게 아내와 두 아이들을 낳은 곳으로 보낸 뒤 떨어져 생활을 해야 했기에 나에게 더욱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가족과 떨어진지 얼마동안 나는 많이 울적하였고 이런 결정을 내린 제 자신이 원망스럽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임마누엘! 주님은 저에게 믿음을 주셨고 더욱 중요한 일들이 나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매순간 기억하며 기도하였고 말씀을 보았을 때, 특히 부족한 것 투성이인 저에게 맡겨주신 교회의 일은 저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에게는 감사의 고백과 찬송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섬기는 교사의 직분은 나에게 정말로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교사로서 아이들을 대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저는 다름이 시작했습니다. 맡겨진 아이들과 기도제목을 나누며 부모님이 교회에 나오시기를 기도하는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그 아이의 부모님을 전도하여 교회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남전도회에서 매일 한 번씩 토요일에 나와 전도를 하면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까지 품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가족과 떨어져 생활을 해야 하는 변화로 인해서 나의 삶에 위기가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더욱 더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항상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따라가리라"고 다시 한 번 굳게 결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정수(집사, 9교구)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오늘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연합예배를 드리는 주일이 다. 온 가족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 세상 무엇보다 바랄 수 없는 소중하고 감사한 일이다. 그동안 우리 가족은 주일이면 아침부터 일찍 준비하여 함께 차를 타고 교회에 와서 큰 아들은 소년부로, 작은 아들은 초등부로 헤어졌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늘 돌아가는 차 안에서 그날의 각자가 주님께 드렸던 예배에 대하여 서로의 은혜를 나누곤 하였다. 그런데 오늘은 가족연합예배이자 성찬주일을 함께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의 손을 꼭 붙잡고 교회 문을 들어서니 내 입에서는 나도 모르게 '사슴에 봄바람 불어오고 ~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하는 찬양이 절로 나왔다. 아빠의 사랑이 더 커서인지 두 아들은 아빠가 봉사하는 헌금위선식 뒤에 앉아 예배를 드렸다. 아빠가 주의 물된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자녀들이 직접 보게 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신앙교육이라고 생각하였다.

작년 이맘 때 오늘처럼 성찬식이 있던 가족연합예배에서 "떡과 포도주를 자기는 왜 안주냐?"라며 토라져 울먹이던 딸아이가 이제는 성찬의 의미를 깨달아 받아들이는 모습에서 새삼 감사가 넘쳐난다. 성찬을 대하며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은총을 가슴 깊이 새겨 보았다. 받치 않는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늘 넘쳐나기를 기도하였다. 예배 도중에 목사님께서 어린이들에게 선포하는 음식 및 가지를 물어 보았다. "감자찌개, 된장찌개, 피자, 치킨"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우리 아이들의 신앙은 특별히의 된장 같은 신앙일까?' 아니면 쉽게 식어버리는 인스턴트 같은 신앙일까?' 그러면서 문득 '아이들의 눈에 비친 내 자신의 모습, 부모의 믿음은 어떤 음식에 비유가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늘 지시만 하고 본을 보이지 않았던 것. 내 아이들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길 바라면서 나 자신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 모든 것이 부끄럽고 연약한 신앙이었다.

가족연합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우리 가정에 부여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은총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았다.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다시 한 번 회개와 감사를 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반석이 든든해지는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더욱 간절히 기도하였다.

조옥자(집사, 19교구)

그때 그때마다

시간은 참으로 빠르게 흐른다. 15년 전의 일이다. 그날 성경에 대해 알고 싶다는 단순한 욕구로 성경을 공부하는 이반 저반을 기웃거리다가 급기야 교사양성부에서 특별해서 공부를 마쳤지만 교사할 생각은 꿈에도 없었다. 그러던 그 당시 교사로 봉사하고 있던 직장동료는 함께 교사로 봉사하자고 꽤 오랜 시간 동안 나에게 제안해 왔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만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시작했다. 이처럼 정말로 아무 것도 모른 채 중증부에서 첫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아이들에게 적응도 안 되고 또 아이들이 이상한 질문을 하면 어쩌나 걱정과 두려움이 항상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돕는 손길을 느끼게 하였다.

또한 교회에 올 때마다 나를 대우주신던 어떤 선생님 덕분에 나에게 지각은 없었던. 다른 선생님들이 오시기 전 일찍 교차 자리를 잡고 기도하며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 사실 나의 의지라기보다는 함께 차를 타고 와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일마다 부지런하게 움직였는데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 정말 지지리도 못한 나를 그래도 사용하시려고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 주시고 다들여 주셨던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 지금도 여전히 그분 나를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땐 눈물이 하염없이 흐른다.

서은숙(교사, 중동3부)

내 영혼이 주를 찬양



거룩하시다 (C.F. Gounod 작곡)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 거룩 거~룩은 누리에 주 하나님. 누리에 주 하나님.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 미련하고 보잘것없는 하찮은 나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할 수 있도록 성령이시고 인도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은혜인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온다. 가슴 가득 채워 오는 그 크신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리라!

"은 누리에 주 하나님~" 불안한 음정과 박자로 제대로 잘 부르지 못하지만 그저 감사함으로 찬양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게 하시며 마음껏 찬양케 하시는 그 큰 사랑 말로다 표현할 수 있을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하심을 주님의 은혜로 믿게 하고 '하늘과 땅에 영광과 존귀 가득 찼다'. 찬양할 때 이루어 행할 수 있는 감동이 전율하는 가운데 기쁨이 감사로 밀려왔다.

"하늘과 땅에 가득한 영광! 은 누리에 주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하신 해를 눈이 부셔서 똑바로 볼 수가 없는데 그 해를 넘어 이 땅에 오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온 세상을 비추어 우리들의 어두운 심령을 가득 채워 주시어 세상과 구별되어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음악적 소절이나 감각이 부족해서 행여나 나의 불행하심이 주님의 거룩하심에 누가 될까 조심하여 심호흡하며 지휘자를 따라 찬양 속으로 들어가니 어느 순간 내 마음에는 천국을 소유한 기쁨이 넘쳐나고 있었다.

이렇듯 언제부터인가 금요찬양집회 시간은 단비를 기다리듯 기다리는 시간이 되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이시기에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찬양하며 거룩 거룩 거룩하심을 올려드린다. 부활의 가운뎃길을 주님을 찬양하고 싶다. 잠을 자면서도, 일하면서, 오고가는 거리에서도 예수님의 보호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며 그리고 나아가 예루살렘 찬양대에서 서서 찬양할 그날을 상상해 본다.

이선재(집사, 11교구)

♡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781	안철호	13	청년2부	박희정(13)	804	오수문	14	청년2부	남윤숙(4)
782	정지혜	18	고등부	주재형(18)	805	이은주	15	청년2부	권혜선(14)
783	윤희식	5	청년1부	이영환(3)	806	한승이	14	청년2부	안영혜(16)
784	임미숙	5	청년2부	최수자(3)	807	김희영	8	소양부	이인경(1)
785	이현향	7	청년1부	남종욱(17)	808	권현태	13	청년1부	오영선(10)
786	박민호	10	청년1부	정경희(11)	809	강정호	11	고등부	박재선(11)
787	프린지	10	대학부	이현주(11)	810	서숙희	19	청년2부	전준기(2)
788	박익수	17	청년1부	최선민(13)	811	윤정민	16	소양부	박진서(14)
789	최승훈	12	대학부	박영준(21)	812	이은지	17	대학부	박성민(17)
790	강종호	16	청년1부	이성훈(7)	813	유연희	7	대학부	문현숙(17)
791	오이슬	11	청년1부	김현옥(6)	814	김보미	19	청년1부	정은정(22)
792	신현철	18	청년1부	김우현(10)	815	이디아	25	외선부	리희도(25)
793	여은구	14	청년2부	김연태(10)	816	김지나	25	외선부	최해라(25)
794	박민숙	11	청년2부	정혜연(11)	817	메로즈	25	청년1부	이성혜(13)
795	장동재	4	고등부	유봉주(21)	818	박지민	25	외선부	이성혜(13)
796	지승준	23	청년2부	이윤익(2)	819	나일미	25	외선부	박성혜(13)
797	정우진	16	청년1부	오영재(16)	820	김지나	25	외선부	김지희(12)
798	박석준	14	청년2부	정미은(16)	821	조보은	25	외선부	최지현(1)
799	김성미	4	청년2부	김영애(3)	822	한나	25	외선부	홍유정(8)
800	노송아	14	청년1부	임지선(10)	823	유하	25	외선부	조영혜(6)
801	김태환	14	청년1부	김경희(20)	824	구영진	7	대학부	박혜영(1)
802	이재민	3	청년2부		825	수송지	18	대학부	최재진(18)
803	안은경	3	대학부	이슬이(1)					

* 출연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

교 회 소 식

발 세

1. 도지령 타교집사(도경애 집사
의 부친, 김병만 집사의 장남,
10교구 현대구역) 5월 13일, 5
일 장례
2. 안태숙 권사(홍수중 집사의 모
친, 노희정 성도의 시모, 19교
구 관악대림구역) 5월 13일, 5
일 장례
3. 문정원 타교집사(조진희 집사
의 오진, 최원호 집사의 장모, 7
교구 용산구역) 5월 13일, 6
일 장례
4. 이종득 성도(전명철 성도의 모
친, 박광수 집사의 시모, 10교
구 원대구역) 5월 13일, 11일
장례

결 혼

1. 성미라 권(성광호 집사·유영
자 타교집사의 아들, 4교구)과
유하나 영장집사 성도의 딸, 4
교구/5월 12일(토) 오후 12시 30
분, 신대수교회 약식결혼
2. 문순호 권(문봉주 씨·윤영애
씨의 아들, 18교구)과 정영옥

영자(영은 씨의 딸) 19일(토)
오후 1시 10분, 대명예 교회현
대목 크리스탈홀을 02-844-
7788

3. 이현우 군(이규용 씨·송병희
씨의 아들과 유미연 영부부처
안수집사·김병선 집사의 딸,
15교구/19일(토) 오후 2시)
4. 최복중 세양아들 사울과 차
3교 3교 라임아들
4. 이훈학 군(이진규 집사·박은
숙 집사의 아들, 6교구)과 박상
아 양이후원 집사의 딸, 부부산
세양아들/19일(토) 오후 2시
5. 장흥수 군(장수문 씨·이영혜
씨의 아들, 20교구)과 김진희
영(김진희 성도·문철순 성도의
딸, 20교구/19일(토) 오후
2시, 평양의 전당 오나코(오나코
가정교회)
6. 김영을 군(김양석 권사·이영
숙 권사의 아들, 안양강림교회)과
김진주 영(김진희 성도·김
명화 집사의 딸, 18교구/19일
(토) 오후 2시 20분 온양대림교
회원 세양아들

◆ 2007년 CMTC 추가원전 일정

일 시: 13일(요일), 6월 3일(주일), 10일(주일), 찬양예배 후
대 상: 2007년도 단기선교 회합장 중 미수료자 전원 장 소: 갈릴리움
* 선교 추가 지원자의 요청 및 타 교회 신장자가 접수되어 추가원전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단기선교 참가 희망자는 훈련일정에 참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 총목 교회주변 전도

일 시: 여전도회: 5월 16일(수), 1부 예배 후 남전도회: 5월 16일(수), 오후 2시
장 소: 여전도회: 각 교구 구역당 영성훈련
남전도회: 지학(15.9.13.17.21교구-307호 2지학(2.6.10.14.18.22교구-307호)
3지학(3.7.11.15.19.23교구-407호) 4지학(4.8.12.16.20.24교구-407호)

◆ 2007년 CMTC 제3차 1일수련회

일 시: 5월 26일(토), 오후 2시~5시 장 소: 갈릴리움 외 지정장소
대 상: 2007년도 단기선교 회합장 전원

◆ 2007년 제4차 탈장문원

일 시: 5월 16일(수), 5월 23일(수) 수요일 2부 예배 후 장 소: 본당 112호
대 상: 2007년도 단기선교회합장 예정자, 장로, 안수집사, 권사, 피택장로,
피택안수집사, 피택권사

◆ 출원 장학생 영성훈련

일 시: 5월 18일(금) 금요일안침례 후 장 소: 베다니움
대 상: 대학, 대학원, 출원 장학생

◆ 소양부 동종원 전도집회

일 시: 5월 20일(주일) 오후 12시 15분~1시 15분 장 소: 갈릴리움
대 상: 70세 이상 모든 성도(타교 성도 참석 가능)

◆ 소양부 동종원 구원학원의 날

일 시: 5월 26일(토) 오후 10시~오후 3시 장 소: 갈릴리움
대 상: 70세 이상 모든 성도(타교 성도 참석 가능)

「주의 영광」 찬양 CD 발매

찬양팀을 통해
제1차 찬양팀
찬양 CD를
발매합니다.
찬양 CD를
통하여 먼저
출판된 찬양
팀의 찬양
곡을 먼저
출판한 뒤
찬양팀을
통하여
발매합니다.
찬양팀을
통하여
발매합니다.
찬양팀을
통하여
발매합니다.

이번 주 새벽기도회 담당

	14 (월)	15 (화)	16 (수)	17 (목)	18 (금)	19 (토)	20 (주일)
설교자/지도자	김성관/오순도	이경준/이신동	김준호/유민재	윤수일/안준호	황진실/장기락	유성택/유희희	한지현/한성일
설교 분 문	요 20:30,31	시 147:12-20	시 148:1-14	시 149:1-9	시 150:1-6	막 1:1-10	막 1:11-19

예배담당 안내 (5/16-5/20)

날짜	예배	설 교	사 회	기 도	찬 양
5/16	수요 I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시 39:7-8) 류병희 목사	김준희	황희동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호산나 찬양대)
5/16	수요 II	하나님의 사랑 (요일 3:7-16) 이용진 목사	김철규	김경희	오 신실하신 주 (설교암 찬양대)
5/18	금요전일	양재호 목사	이재영		예루살렘 찬양대 / 조동부 중장단 / 배비운현 김유정
5/20	주일 I	하와에게 주신 자유 (창 4:25-26) 유원철 목사	박정원	유상대	(예배 전 찬양)
5/20	주일 II	하와에게 주신 자유 (창 4:25-26) 임현덕 목사	류병희	오순도	어서 돌아오오 외 / 소프라노 김승희(가브리엘 찬양대 솔로리스트)
5/20	주일 III	하와에게 주신 자유 (창 4:25-26) 정진호 목사	안정덕	이계민	군한 네 영혼편히 잠곡하고 외 / 피아노 조동부(멜로디스 오케스트라)
5/20	주일 IV	하와에게 주신 자유 (창 4:25-26) 이경준 목사	김준희	최원진	십자가 그늘 밑에 외 / 소프라노 정정희(멜로디스 찬양대 솔로리스트)
5/20	주일 V	하와에게 주신 자유 (창 4:25-26) 정진호 목사	양태선	윤석민	예수나를 위하여 외 / 베로라 이신원(오케스트라와합)
5/20	주일찬양	유관한 아내, 유관한 자식 (호 1:1-9) 유재진 목사	유성택	이세영	소양부 중장단 / 호산나 찬양대

예배 및 집회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I	오전 7:00	본 당
II	오전 9:00	본 당
III	오전 11:00	본 당
IV	오후 1:00(외국인 동성결혼 예배)	본 당
V	오후 3:00 (젊은이들이 드리는 예배)	본 당
주일일예배	오후 5:00	본 당
주 요 예 배	I 오전 11:00 II 저녁 7:30	본 당
금요찬양집회	저녁 7:30	본 당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00	본 당

기도원 집회 안내 (☎ 031-766-5425)

집 회	시 간	차 량
화요집회	오전 11:00	오전 10:00 본당 앞 출발
금요집회	저녁 11:00	금요일 찬양팀 본당 앞 출발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6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외국어 예배로 이루어지며 주일 9부 예배는 한국어 예배로 이루어지며, 중국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 등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panish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O'clock Worship Service, and St. Larki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clock Worship Service.

구 분	시 간	장 소
영 아 부	I 오전 9:00 II 오전 11:00	제1교육관 110호
유 아 부	오전 10:30	제1교육관 201호
유 처 부	오전 10:50	제1교육관 207호
유 년 부	오전 10:30	제1교육관 307호
초 등 부	오전 10:30	제1교육관 407호
소 년 부	오전 10:30	제1교육관 507호
중 등 1부	오전 9:00	제1교육관 301호
중 등 2부	오전 9:00	제1교육관 401호
중 등 3부	오전 9:00	제1교육관 501호
고 등 부	오전 11:00	제2교육관 4층
대 학 부	(토) 오후 2:00	제2교육관 4층
청 년 1부	오후 5:30	제2교육관 4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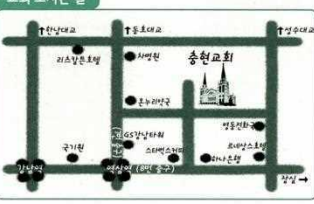
구 분	시 간	장 소
청 년 1부	오후 12:15	제2교육관 2층
청 년 2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507호
청 년 3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407호
청 년 4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307호
소 양 부	오후 12:15	다 니 홀
사 랑 부	오전 11:00	복합체 지하차도
예배다부	오전 9:00(학원) 오전 1:00(성직)	제2교육관 1층
타 학 부	(주) 오전 8:30~8:40 (금) 저녁 7:00~7:15	선교관 1층
새벽찬양부	오후 12:15	다 니 홀
출현이영이집	주간교육	제1교육관 107호
정신장애교육	주간교육	출현복지관
청년기도회	오전 11:00	아 멘 홀

5월 출현 기도의 창

1. 출현의 모든 성도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부활의 중언이 되게 하소서.
2. 25개 교구를 통하여 출현교회와 십자가의 복음으로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소서.
3. 위임목사들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써 십자가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영육의 강건함을 주소서.
4. 단기선교와 모든 선교후원이 성령님의 뜻대로 진행되며, 출현의 모든 성도들이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5. 1·1·1 전도와 특별 목회 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있는 출현 교회주변 전도를 통하여 역삼동 일대의 모든 영혼들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게 하소서.
6. 모든 위원회에 속한 각 부서들이 예수 그리스도권을 전하는 데 하나되며 예루살렘 찬양대를 통해서 금요찬양집회와 보혈의 은총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7. 피택받은 일꾼들이 모든 교육을 통하여 십자가의 일꾼이 되게 하시며 대우된 등록하는 새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혈의 복음을 전하는 중언이 되게 하소서.
8. 교회에 속한 재단(유지·보수·복지)과 출현복지관이 복음으로 견고해지게 하고, 현재 추진중인 양로원, 수양관, 남침례식 및 본당 외벽색채 보수공사가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24시간 연속 기도실 : 본당 113호(112호 옆)

교회 외시는 길



심 · 기 · 는 · 분 · 들

■ 위임목사 김성관

부부사	류병희	여국근	안정덕	정진호
박인기	류병희	여국근	안정덕	정진호
김익환	장 준	임현덕	이희식	최종철
최정규	안지현	정준성	양재호	이성진
최정규	이재영	이경준	김준희	윤수일
황진실	유재진	김정희	전성원	김철규
이용진	양태선	유성택	유원철	박정원
김한수	최정규			

■ 애전도사

윤인숙	한영준	김연식	홍순애	이옥주
김자라	김정희	강기필	최원진	
전태희	김정희	이복순A	류진희	
한성일	임태주	강영미	유지자	이복순B
강호수	전영희	이혜숙		

■ 전일감독 강기근

■ 전일지도자 서준성 김원철

■ 전일감독자 김소연

■ 전일연주자 장연희

■ 전 교 사 송유환